

1.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문의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수험생은 논제를 파악하고 여러 통계 자료와 글 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선택한 후 다른 입장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험생에게 익숙한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제공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논제인 백신 국가주의 찬반 논의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과 같은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룬 ‘국가의 역할과 합리적 선택’에 관한 것이다. 자료는 전염병 팬데믹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백신 국가주의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토론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글 자료와 통계 자료로 구성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는 백신 국가주의 찬성 논리와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인권 보호와 지적재산권 보호가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백신 국가주의 반대 논리를 추론할 수 있는 글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통계 자료는 백신 국가주의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표와 그림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반론을 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2. 문항 해설

본 문항은 제시된 글의 핵심을 파악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표·그림 자료의 해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논제는 현재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국가주의를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두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백신 국가주의 찬성 지문으로는 특허권 보호가 혁신을 촉진하는 사례[제시문 (가)], 위기 시 효율적 대응방안[제시문 (다)], 국가의 일차적 의무[제시문 (마)]에 대한 지문이 제시되었고, 반대 지문으로는 국가를 초월하는 보편적 인권[제시문 (나)], 지적재산권 보호가 사회적 약자의 차별로 이어지는 사례[제시문 (라)],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제시문 (바)]에 관한 지문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시문 (사)에서는 찬반의 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네 개의 표·그림 자료가 제시되었다.

문항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시문의 핵심 요지에 대한 파악과 그것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고, 두 번째 질문은 국가 백신주의와 연관시킬 수 있는 통계 자료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제시문에 활용된 주요 개념과 이론은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것을 취하였다. 본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비판,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을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시문 (가)는 브루넬레스키에게 특허장을 발급하여 피렌체 대성당의 돔형 지붕을 완성한 사례와 에디슨의 발명품에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발전에 공헌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품의 독점권과 배타권을 부여하는 특허권이 제품의 혁신성을 보호하고 이윤을 보장해주어 발명을 촉진하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유추

할 수 있다. 본 제시문은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을 개발한 국가가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 사용권을 가져야 향후에도 백신 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백신 국가주의 찬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무국적 상태의 난민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국제적 장치가 없는 현실을 비판한 한나 아렌트 글의 일부다. 국민만이 주권을 가진 시민이 될 수 있고 시민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면, 국가를 떠날 수밖에 없어 난민이 된 사람은 어디서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우연히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법적·시민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수백만의 사람을 잉여적 존재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본 제시문은 팬데믹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백신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비판하고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비행 시 위기 상황에서 기내 산소마스크에 관한 안내사항이다. 비상시 산소마스크는 스스로를 보호할 역량이 부족한 어린이보다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성인이 먼저 착용해야 한다. 이것은 효율적 위기 대응을 위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로,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 뛰어난 기술력, 자본력, 행정력을 가져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개발한 국가가 먼저 자국민에게 접종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한 후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국가를 돕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볼 때 보다 효율적인 위기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본 제시문은 백신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지적 재산권 보호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사례이다. 한 미국의 스포츠 구단이 인디언을 비하하는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다 제소를 당했지만 법원의 승소 판결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았다. 지적재산권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 소수와 약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보편적 정의에 어긋나는 사례를 통해,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백신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은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해 약자가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백신 국가주의에 반대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근대의 권리사상 가운데 보편적 인권과 시민권을 제시하고, 국가가 우선 책임을 지고 보장해야 할 것은 국가 존립의 기반인 시민권임을 설명하고 있다. 시민의 권리에는 자유와 평등 등 정치적 권리 외에도 행복 추구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국가권력에 저항할 권리가 있음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이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상은 자국의 국민이며,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제시문은 국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백신 국가주의를 찬성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바)는 루소의 ‘사슴사냥’ 우화를 통해 집단의 이익을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에 대해 논하고 있다. 반복적 경험을 통해 상호 신뢰의 이로움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서 상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간에 있어서도 그간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 마련된 여러 국제기구와 제도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본 제시문은 이러한 국제기구와 제도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인류 전체를 위한 ‘사슴’ 사냥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백신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시문 (사)는 주어진 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논제와 관련하여 제시된 통계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갖는 의미를 실제 사회현상과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자료(<자료 1>), 백신접종 범위에 따른 국제경제 전망 자료(<자료 2>), 국제경제에서 국가 간 상호의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자료 3>),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를 변용하여 국가 간 협력의 어려움을 핵무기 경쟁으로 보여주는 자료(<자료 4>)를 제시하였다. <자료 1>과 <자료 4>는 백신 국가주의에 찬성하는 자료로, <자료 2>와 <자료 3>은 백신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채점 기준

[문항 1] 총 60점

제시문 (가)~(바)를 활용한 선택의 정당화 : 20점

- 제시문 (가)~(바)를 활용한 선택의 정당화(15점)

주장 1(찬성) 선택의 정당화	주장 2(반대) 선택의 정당화
(가)의 논거 : 특허권의 보호가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기여함(5점)	(나)의 논거 : 인권은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로 보호받아야 함(5점)
(다)의 논거 : 위기 상황에서 자국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5점)	(라)의 논거 :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야기함(5점)
(마)의 논거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5점)	(바)의 논거 : 국가 간에도 제도와 규범의 마련을 통해 협력이 가능함(5점)

- 글의 논리성(5점)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제시문 (가)~(바)를 활용한 자신이 선택한 주장에 대한 반론 : 20점

- 제시문 (가)~(바)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론(15점)

주장 1(찬성)에 대한 반론	주장 2(반대)에 대한 반론
(나)의 논거 : 인권은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로 보호받아야 함(5점)	(가)의 논거 : 특허권의 보호가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기여함(5점)
(라)의 논거 :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야기함(5점)	(다)의 논거 : 위기 상황에서 자국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5점)
(바)의 논거 : 국가 간에도 제도와 규범의 마련을 통해 협력이 가능함(5점)	(마)의 논거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5점)

- 글의 논리성(5점)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반론에 제기된 논거에 대한 재반박 논리 : 20점

- 제시문 (가)~(바)를 활용하여 반론에 대한 재반박(15점)

주장 1(찬성) 선택 재반박 논리(예시)	주장 2(반대) 선택 재반박 논리(예시)
(나)의 논거 재반박 : 국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권 보호의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짐(5점)	(가)의 논거 재반박 : 혁신은 특정 국가가 아닌 인류 공동의 지혜에 기반함(5점)
(라)의 논거 재반박 :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모험적 투자와 비용 지출이 가능(5점)	(다)의 논거 재반박 : 전염병의 특성상 백신 공유가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임(5점)
(바)의 논거 재반박 :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제한적임(5점)	(마)의 논거 재반박 : 세계화의 시대에 자국민의 안전만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함(5점)

- 글의 논리성(5점) : -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때 사용했던 논거를 단순 반복할 경우 감점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문항 2] 총 40점

자료의 선택 : 10점

-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자료의 선택
 - 주장 1(찬성)의 선택: <자료 1>, <자료 4>
 - 주장 2(반대)의 선택: <자료 2>, <자료 3>
- ※ 자료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 각 5점씩 감점.

제시문 (사)의 <자료 1>~<자료 4> 해석 : 30점

주장 1(찬성) 선택	주장 2(반대) 선택
<자료 1>의 해석 (15점) - 자료 해석(10점): 대다수의 국가가 IPI와 GI의 같은 분위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두 지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해석의 의미(5점):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혁신을 촉진함 <자료 4>의 해석 (15점) - 자료 해석(10점): 강대국 1, 2 모두 협력 시 1.5개, 비협력 시 9개의 핵무기 보유가 예상되어 비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해석의 의미(5점):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협력은 일어나기 어려움	<자료 2>의 해석 (15점) - 자료 해석(10점): 백신을 공유한 시나리오에서 모든 국가집단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높게 나타남 - 해석의 의미(5점): 백신 공유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뿐 아니라 백신을 개발한 선진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됨 <자료 3>의 해석 (15점) - 자료 해석(10점): 국가 간 의존도가 높은 수출형 및 국제분업형 생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해석의 의미(5점): 국제적 상호의존 시대에 한 국가의 면역만으로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 ※ 1번 문항과 2번 문항 각각 (-)15점 이상 감점할 수 없음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 ※ (-)10점까지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1번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2번	340자 - 439자	10점 감점(-)
	440자 - 539자	5점 감점(-)
	540자 - 660자	감점 없음
	660자 초과	5점 감점(-)

4. 예시 답안

'주장 1'을 선택한 경우

* [문항 1]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100자)

백신 국가주의를 찬성한다. 그 이유는 첫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 팬데믹의 상황에서 각 국가가 우선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자국민 보호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염병 팬데믹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통제능력을 갖춘 주체들을 중심으로 전체 상황을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방역의 주체인 각 국가가 백신개발 등 자구적 통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 국가 상황에 맞게 국가단위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염병 팬데믹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개발이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자국민을 우선 보호하면 국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가의 역량이 미약한 국민들의 생명이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 둘째, 전염병 팬데믹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인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의 상호협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 셋째, 발명을 위해 특허권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고, 수많은 인류의 생명과 직결된 전염병 팬데믹의 상황에서 특허권은 보류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권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인권보호의 실질적인 주체였던 국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권이 자본 등 다른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등 인권 보호의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또 같은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각 국가의 위기정도나 상황이 상이하고, 국제기구가 각 국가의 행동을 통제할 만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효율적인 국가 간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단기간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험적인 투자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허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원고지 기준 1,005자)

* [문항 2] 예시답안 (공백 포함 600자±60자)

백신 국가주의를 찬성한다. 백신 국가주의는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백신개발과 같은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다. <자료 1>에 따르면 IPI 지수가 상위권인 국가들의 대부분이 GII 지수도 상위권에 속한다. 반대로 IPI 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GII 지수도 낮다. 즉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가 자국 내 기업들의 혁신활동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장 어려운 국가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히 한다면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질병에 대비하지 못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백신 국가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협력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다. <자료 4>는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강대국의 군비경쟁 상황을 나타낸다. 상대국이 협력할 확률이 50%인 상황에서, 강대국 1, 2 모두 협력 시 평균 1.5개, 비협력 시 평균 9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다. 협력을 택했다 상대국이 비협력한다면 큰 군사적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협력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특히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백신 공유와 같은 선부른 협력은 자국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고지 기준 648자)

'주장 2'를 선택한 경우

* [문항 1]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100자)

백신 국가주의를 반대한다.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누구나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백신을 개발한 특정 국가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인격적 절멸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과 같다. 둘째, 특정 국가가 개발한 백신과 같은 신기술의 특허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줄 경우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지적 재산권을 이유로 인디언에 대한 차별적인 상표권을 용인하게 되면 인디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상황에서는 자국 이기주의에 빠지기보다는 국가 간의 폭넓은 협력이 실제로 전염병을 종식시키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신 국가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일차적 의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상은 자국민이며, 만약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경우 국민은 그런 국가를 바꿀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기술의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술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근대 특허제도의 정착 덕분에 전구발명과 같은 기술혁신으로 사회발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하기에 백신에서도 우선순위에 근거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구촌으로 촘촘히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기에 자국민의 안전만 따로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인적 물적 교류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경을 잠그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밖에 될 수 없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백신 개발에는 특정 국가나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인류가 축적한 공동의 지혜에 기반하기에 소수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팬데믹 상황에서는 전염병의 특성상 한 집단의 면역만으로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원고지 기준 1,038자)

* [문항 2]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50자)

백신 국가주의를 반대한다. <자료 2>는 백신을 개발한 선진국이 다른 국가들과 백신을 공유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할 것이지만, 백신을 공유한다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1.3%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을 보여준다. 이는 많은 국가가 서로 연결되어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백신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것이 자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 3>은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없이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국내 소비형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원자재의 수입 후 최종재를 수출하는 수출형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중간재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제분업형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 간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 도입한다면 어느 한 국가만이 백신을 점중한다고 해서 전염병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많은 국가들이 상호 의존 관계로 연결되어있는 현대 사회에서 백신 국가주의는 그 효용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는 백신 국가주의를 반대한다.

(원고지 기준 567자)